진실을 만나다 - 밀레
WWW.MILLET.CO.KR

光州日報

광주 22/27℃ 목포 23/26℃ 여수 22/26℃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275호 1판 2012년 7월 17일 화요일

단기 4345년 (음력 5월 28일)

우암학원 창학62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16일 오전 신안군 임자도 인근 해상에서 젓새우잡이 어선이 걷어올린 그물에 새우 대신 붉은색을 띤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가득 올라오고 있다.
/신안 임자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물반 해파리반' 신안 임자도 젓새우어장 르포

그물마다 터질듯…"조업 중단할 수밖에…"

"해파리 때문에 새우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그물이 찢어지기도 하지만 선원들 월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업에 나설 수밖에요."

16일 오전 신안군 임자면 임자도 4~5km 해역. 새우잡이 어선인 9.77t급 연안 자망어선 근영호 선원들이 길이 11m, 폭 4.2m 크기의 뻗침대 자망 1칸을 끌어올리자 해파리 수십여 마리가 딸려 올라왔다. 기대했던 젓갈용 새우는 손으로 셀 정도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물을 잡아당겼던 선원 5명의 눈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관련기사 3면〉

이 해파리들은 '노무라입깃 해파리'로 아직 성체가 되지 않았지만 크기가 30~60cm에 달했다. 이날 함께 해파리 실태 파악에 나섰던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대책반과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목포·신안·영광 새어민회 회원의 입에서도 탄식이 터져 나왔다. 남은 그물 22칸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어획량 작년 30% 어구 훼손도 심각

김영숙 선장은 "피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조업을 당분간 중단해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어민들이 해파리 피해를 입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중순. 해역 수온이 섭씨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서해 먼바다에서 10~30cm 크기의 보름달물 해파리가 서해 앞바다 인근으로 몰려들었다. 그때만 해도 새우의 양이 이만큼 줄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 초 갑작스레 노무라입깃 해파리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어획량에 큰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김 선장은 "보름달물 해파리보다 두 배 이상 큰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그물에 붙어 조류의 흐름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새우가 그물로 들어오지 못한다"며 "잡히는 새우조차도 해파리 독에 중독, 금세 변질돼 상품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 선장은 지난해 하루 평균 200ℓ 드럼 2~3통 수준의 어획량을 올렸다. 지금은 드럼 1통도 채우기 힘들다. 1통당 500만~6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김 선장이 지난 한 달간 입은 피해는 무려 1억원이 넘는다.

어민들의 걱정은 지금부터다. 앞으로 2~3주면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최대 1.5m에 무게만도 150kg에 달하는 성체가 된다. 이때부터는 조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물을 들어올리는 것도 힘들고 어구 피해도 심각해진다. 또 수온이 점차 올라감에 따라 서해 먼바다에 있던 해파리들도 점차 서해안 연안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큰 그물로 다른 어종을 포획하는 다른 선박들도 조업이 힘들어진다.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대책반 윤원득 박사는 "피해가 심각한 것을 감안해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19일께 임자도 일대 해역에 해파리 경계경보를 내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목포·신안·영광 새어민회 김인석 회장은 "신안 일대뿐만 아니라 영광 인근도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제철인 민어, 병어의 어획량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전했다.

/신안 임자도=김경인기자 kki@

광주·전남 태극전사 '10-10' 이끈다

런던올림픽 D-10

한국의 '10-10'에 광주·전남출신의 태극전사들이 앞장선다.

〈관련기사 14면〉

지구촌의 대축제인 2012 런던 올림픽이 오는 27일 성대한 막을 올린다. 한국은 10일 앞으로 다가온 런던 올림픽에서 10개의 금메달로 10위에 오르겠다는 '10-10' 목표를 내걸었다.

양학선(체조), 이용대(배드민턴), 기보배(양궁), 박태환(수영), 진종오(사격), 사재혁(역도), 남현희(펜싱), 신종훈(복싱), 이대훈(태권도), 왕기춘(유도)이 한국의 금빛 목표를 이뤄줄 기대주로 꼽힌다.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인 양학선을 비롯해 이용대, 기보배는 광주·전남 출신이다. 세 선수의 어깨에 한국의 '10-10'이 놓여있다.

한국 남자 기계체조의 간판 양학선(20·한체대)은 광주체고 2학년이던 2009년 성인 대표팀 태극마크를 단 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지난해 도쿄 세계선수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세계적인 선수로 우뚝 선 양학선은 자신의 이름을 딴 난도 7.4점의 독자기술인 'YANG Hak Seon'으로 금빛 착지를 노린다.

이용대

양학선

기보배

화순출신의 '윙크보이' 이용대(24·삼성전기)에게는 두 번째 금메달 도전이다. 베이징 올림픽 혼합복식에서 이효정과 금메달을 합작한 이용대는 이번 대회에서는 남자복식 제패를 노리고 있다.

이용대는 베이징 올림픽 16강 탈락의 아픔을 맛보았던 남자복식에서 정재성과 호흡을 맞춰 다시 한번 올림픽 정상을 밟겠다는 각오다.

여자 양궁 대표팀의 막내 기보배(24·광주시청)도 금메달을 겨냥하고 있다.

안양출신의 기보배는 광주여대에서 제 2의 양궁인생을 시작한 뒤 승승장구하고 있다. 처음 태극마크를 단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과녁 정중앙에 꽂힌 화살을 명중시키는 '로빈후드 애로우'까지 선보이며 신궁으로 떠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本社人事

▲ 金旰星 편집국 부국장

▲ 鄭棋太 논설위원

〈7월 17일자〉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알림

韓中수교 20주년 기념

"니하오 펑여우" 사진 콘테스트

〈你好朋友·안녕 친구〉

오는 8월 24일로 한국과 중국은 수교 20주년을 맞습니다. 광주일보사와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은 이를 기념해 광주 전남북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한국인의 눈에 비친 중국인의 생활상과 중국 풍경,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응모해 주십시요. 우수작은 오는 8월 광주 전남북 주요도시에서 순회 전시합니다.

8월 8일까지 접수 연장합니다

■ 출품 마감:2012년 8월 8일 오후 6시
■ 참가 대상:광주 전남·북 거주 한국인 및 중국인
■ 작품 내용:상대국의 풍경과 생활상을 담은 사진
■ 시상:대상(3박4일 중국 여행권, 중국 명주 1병)
우수상(중국 왕복항공권, 기념품)
■ 접수:홈페이지 (2012cn-krphotocontest.com)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중국총영사관 홈페이지(gwangju.china-consulate.org/kor/)
■ 문의:(062) 2200-616, 385-8874

光州日報社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www.r-golf.com

골프 · 특급호텔 · 의료

천만원대의 회원권으로 특별한 혜택을 누려라!

록펠러 멀티 회원권

하나의 회원권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개념 멀티회원권입니다. 록펠러회원권거래소(주)에서는 미래에셋생명과 함께 제휴하여 여러 골프장과 특급호텔 · 의료 이용혜택을 드리는 록펠러 멀티 창립회원을 300구좌 한정 모집합니다.

록펠러 멀티회원 특별혜택
■ 기명 1인 입회
■ 골드레이크C.C(퍼블릭), 무등산C.C, 아크로C.C, 푸른솔 골프클럽
각 골프장별 매월 3회(일요일 1회 포함) 그린피(카트비 제외) 30% 지원
■ 골프장 그린피 할인시 중복 20%지원
■ 광장 골프존, 리얼 스크린골프존, 자이언트 골프존
각 스크린 골프장별 매월 5회 그린피 30% 지원
■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회원우대 특별할인가(스탠드룸 기준)
■ 세계로한방병원 골프전문 클리닉, 한방진료, 입원 의료 혜택
■ 미담한의원 피부미용, 다이어트프로그램, 의료 혜택
■ 통합 부킹 사이트 정회원 대우
※ 본 할인혜택은 록펠러회원권거래소, 미래에셋생명에서 제공합니다.

미래에셋생명과 공동개발한 신개념 회원권
■ 입회기간 : 5면(만기 연장 또는 원금 반환)
■ 입금방식 : 미래에셋생명 개인 전용계좌
질권설정가능(설정비용 수수료는 본인 부담)
■ 보증금 예치기관 : 미래에셋생명
■ 예금주 : 광주은행 032-107-085749 록펠러회원권거래소(주)

※ 멀티회원권전담부서 운영(입회 1년 후 명의 개서 가능)
미래에셋생명 자금관리 원금보장

록펠러회원권거래소(주)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9 1층
가입문의 062-351-0095
예약문의 062-655-7799